



광남일보



 전남신보, ESG경영 '으뜸' 기재부 장관 표창 마스터플랜 수립 사회적 가치 창출 도민행복 실현	 완도군, '치유의 예술 섬' 조성사업 선정 신우철 군수 "예술·문화·역사 콘텐츠 개발"	 이상의 합평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 중앙부처 방문...6건 273억 지원 요청	 "인재 발굴·육성 집중...하기 발전 이끌 것" 박찬봉 제3대 광주하키팀 협회 회장
조간 제784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음력 4월 24일)	

화순 폐탄광 '스마트팜·농공단지' 조성

강원 태백 폐광이 우주 탐사 실험실로 탈바꿈하는 사례가 주목받는 가운데 조기 폐광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화순탄광)도 신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3·4면

정부가 화순 폐탄광을 대신할 지역 경제 진흥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 중인데다, 21대 대선 주요후보의 공약에도 폐탄광 개발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문을 닫은 화순탄광은 강원 태백시·삼척시와 함께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등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의료와 식품 분야의 농공단지, 스마트팜 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했으나 2023년 1차 예타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가 낮아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화순군은 골프장과 리조트 등 복합관광 단지를 제외하고 스마트팜과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종합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은 총 5945억원으로 국비 870억원, 지방비 298억원, 민자 477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농공단지에는 식품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단지에는 스마트팜 시설을 비롯해 연구개발 지원시설, 스마트팜 근로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5·18 차량 행진' 민주기사의 날 20일 광주 북구 옛 무등경기장 앞에서 열린 제45주년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5·18공법단체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정부 경제진흥개발 예타 선정...신산업 거점 기대

2031년까지 5945억 투입...민주당 공약에 반영도

화순군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국회에 실시 설계 관련 예산 102억원을 건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3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선 기초공약인 동내공약에 폐광지역 신성장축이 반영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남 22개 시·군 기초 공약인 '우리동

네 공약'을 발표하면서 화순은 첨단의료 복합단지와 광역 교통망, 폐광지역 신 성장축, 고인돌 유적지 국가정원 조성 등 4건을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로 계획을 수정, 보완해 예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광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순군과 협력,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05년 한국인 박현경이 광업권

을 등록해 문을 연 화순탄광은 118년 동안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였다.

산업전사로 불리며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산업구조와 시대환경이 변하면서 정부는 1988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축소 정책)으로 석탄 산업의 종말을 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12월 장기계획에 따라 화순탄광과 강원 2곳의 탄광(장성·도계)을 조기 폐광하기로 결정했다. 화순탄광은 2023년 6월 폐광됐다.

이현규 기자 gnnnews1@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알림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2일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는 5월 22일(목)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에서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문 교수는 Mplus 대표이사, 오리콤 브랜드 전략 연구소장, 정부혁신브랜드 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17 SDGs In Action, 마이크로 밸류, 세상 모든 CEO가 묻고 싶은 질문들, 우리는 그들을 신화라 부른다, 세상의 중심 브랜드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초청강사 : 문달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주 제 : 조직의 변화 혁신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까?

△일 시 : 2025년 5월 22일(목) 오후 6시

△장 소 :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

△기타사항 : 오후 5시 30분부터 석식제공 (8층 레스토랑)

△문 의 :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

△주 최 :  광남일보

금타 광주공장 화재 76시간 만에 '완진'

잔불 제거·건물 해체 주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20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10차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오전 11시 50분을 기해 긴급 상황은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15면

이는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 화재가 발생한 지 76시간39분 만이다.

소방 당국은 화재 이틀째인 18일 오후 2시50분께 주불을 잡았으나, 각종 가연성 물질이 뿜춘 200여개의 이른바 '도깨비 불'로 안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중장비를 투입해 불씨를 제거하고자 했던 잔불 진화 작업은 도깨비불 재발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 건물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고성능 장비를 동원해 정면에서 고압을 방사하는 전략으로 진화하면서 진화 작업은 속도를 냈다.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대원을 건물 내부로 투입, 13분 만에 공장 1층 화염을 진압했고 오전 7시40분

2층 화염도 완전히 제거했다.

완전 판정이 났지만 소방당국은 현장에 남아 재발화하는 잔불덩이를 계속 제거할 방침이다.

김 광산소방서장은 "이날 오전에 모두 제거한 도깨비불이 총 8곳에서 다시 살아나 재차 진화했다"며 "향후 3일 안에는 자체적으로 진화되거나 사라지면서 연기도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연기 발생 최소화와 재발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건물 해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체 작업에는 35t 굴삭기와 절단 장비가 투입됐으며,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이 집중된 2층과 12번째 칸부터 진행됐다. 해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3일이 예상된다. 화재가 진화됨에 따라 후속 대책 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광산구청장에게 이양됐다.

지휘권을 이양받은 박병규 구청장은 "공장을 신속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시민 불편도 하루 빨리 조치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ih4415@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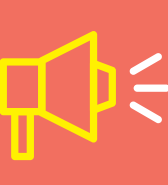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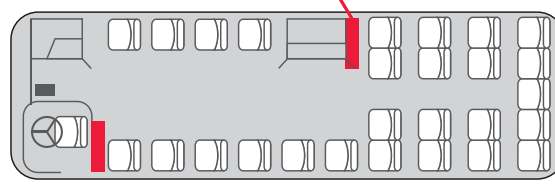


저렴한 광고비

이벤트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